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세미나 성료

연구원은 지난달 14일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연구원이 SOC포럼과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김재운 삼일 회계법인 이사,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기획조정실장, 고훈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발제자로 나서 각각 ‘BTO-rs/BTO-a의 적용 사례 분석’과 ‘새로운 민간 투자 방식에 대한 제언’, 그리고 ‘민간투자사업 워크아웃제도 도입 방안’ 등을 각각 발표하였다.

주제 발표 후에는 김홍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고 이상영 기재부 민간투자정책과장, 이윤상 국토부 광역도시도로과장, 이호준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민간투자실장, 박현 서울시립대 교수, 정진환 NH농협 팀장, 안찬주 대림산업 팀장이 지명 토론자로 참여한 종합 토론회가 진행되어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하반기 연구자문위원회 개최

연구원은 지난달 27일 강남구 역삼동 소재 중식당 루안에서 연구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 위원회는 연구원 정관에 의거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설 자문기구로서 차기 연도의 연구 과제 및 연구원 운영과 관련하여 자문을 수행하는 기구이다. 이번 회의에는 정부와 학계, 연구계, 업계 등의 자문위원 7명이 참석하여 내년도 연구 계획을 들은 뒤 의견을 개진하였다. 연구원은 조만간 연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하여 이사회에 상정할 2016년도 연구원 사업 계획(안)을 확정지를 예정이다.

‘2016년 건설·부동산 경기 전망’ 세미나 개최

연구원은 이달 3일 논현동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2016년 건설·부동산 경기 전망’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홍일 연구위원과 허윤경 연구위원이 각각 발제자로 나서 ‘2016년 건설 경기 전망’과 ‘2016년 주택·부동산 경기 전망’을 발표한다. 이어 스페셜 세션에서는 유위성 연구위원이 ‘조기경보체계(EWS) 도입을 통한 해외건설의 현황과 향후 전망’을 주제로 발표한다. 세미나 발표 자료는 연구원의 홈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으며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제24차 한·일 건설경제워크숍’ 참여 예정

연구원의 심규범 연구위원은 이달 16일부터 18일까지 일본 나라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24차 한·일 건설경제워크숍’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에서 심규범 연구위원은 ‘한국 건설 인력의 훈련 체계’에 대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한·일 건설경제워크숍’은 한국과 일본의 건설 전문가들이 양국의 건설산업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협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매년 개최하는 모임이다. 